

1970년대 강렬한 추상회화 최육경 작품 3점, 파리 간다

July 7, 2020 | 김민 기자



최육경의 '무제'(1966년, 캔버스에 유채, 185x121cm), 국제갤러리 제공

1970년대 강렬한 추상회화 최육경 작품 3점, 파리 간다

내년 퐁피두센터 '추상속 여성'전
전세계 작가 112명중에 포함

'한때에/나의 이름은/낯설은 얼굴들 중에서/
말을 잊어버린 '병어리 아이'였습니다./타항
에서 이별이 가져다주는/기약 없을 해후의/슬
픔을 맛 본 채/상남 짐승들의 동물원에서/무
지개꿈 쫓다가/길 잃은 아이'였습니다.'(최육
경의 시 '나의 이름은')

1970년대 강렬한 추상 회화로 국내 화단에
깜짝 등장했던 미술가 최육경(1940~1985)의
작품이 내년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관
객을 만난다. 주로 체류하던 미국에서는 아시
아 여성으로, 국전 중심의 보수적 국내 화단에
서는 이방인으로 여겨지곤 하던 최육경, 스스
로를 '이름 없는 아이'로 칭했던 그의 작품이
조금씩 걸맞은 이름을 찾아가고 있다.

6일 미술계에 따르면 최육경의 작품은 내
년 5월 5일~9월 6일 열리는 퐁피두센터의
'Women in Abstraction(추상 속 여성)전'에
포함됐다. 전 세계 작가 112명의 작품 400여
점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로 그의 색채 추상
3점이 전시된다. 퐁피두센터 이후에는 스페인
발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순회전(2021년
10월 22일~2022년 2월 27일)을 연다.

이번 퐁피두센터 전시는 최근 국제 미술계의
'미술사 다시 보기' 열풍에 발맞춰 백인 남성 중
심의 기존 미술사를 벗어나 여성 작가들 전면에
내세웠다. 앞서 미국 뉴욕 구겐하임에서 열린
'힐마 아프 클린트'전은 60만 명이 찾으며 큰 반
향을 일으켰다. 이번 전시에도 클린트를 비롯해
루이스 부르주아, 바버라 헵워스 등 여성 거장
의 작품이 걸릴 예정이다. 전시를 기획한 크리
스틴 마셜 수석 큐레이터는 "기존의 많은 전시
가 추상 예술에서 여성의 역할을 축소해 왔다"며
"부당하게 가려진 여성들의 작품을 재평가할 것"
이라고 밝혔다. 김민 기자 kimmin@donga.com